공학윤리와 토론 9주차 동영상 강의 요약문

김다영

책임(responsibility)과 장애물

책임은 약속에서 온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겠다는 미래에 대한 약속에서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약속이 불이행 됐을 때 책임의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책임의 문제는 주로 공공의 안전, 건강, 복지 등에서 발생한다. 공학에서의 책임은 전문가들이 지게 되며 일반인들이 전문가에게 제기하는 것이 책임이다. 책임에 대한 7가지 장애물이 존재하는데 이 장애물을 잘 극복할수록 책임에 관련해서 명확한 판단을 하고 개선할 수 있다.

책임, 불확실성, 신뢰

약속은 위에서 말했듯이 타인의 기대와 깊은 관련이 있다. 전문가에게 어떠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약속이 이행된다는 절대적인 보장은 없다. 미래라는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인간이 막지 못하는 자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실수, 인간의 무지 등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통해서 일반인이 전문가에게 무언가를 맡기는 것이다. 불확실성과 신뢰는 상호 보완적이며 신뢰는 사회의 자산이다. 신뢰가 파괴되었을 때 책임을 져야하는 관계도 있다. 책임이라는 것은 일반인이 보내는 신뢰에 대해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책임의 조건?

책임의 조건에는 고의성과 인과성이 있다.

고의적이지 않은 네가지 사례는 첫번째로 전문가임에도 몰라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두번째는 실수를 하는 경우이다. 세번째는 의도는 선의였지만 결과가 나쁜 경우이며, 마지막 네번째는 강압적인 환경에서 강요와 협박의 위협으로 인해 행위를 하였을 때 고의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고의성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과성은 행위가 피해를 일으킨 것에 연관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이다. 연관의 정도가 클수록 책임의 크기가 커진다. 이때 인과성은 증거 우선 주의에 입각하는데 인과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명확해야 한다. 증거가 뚜렷할 때 인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증거가 없으면 인과적이라고 할 수 없다.

배려의 기준이란 책임과 면책의 경계를 가르는 기준이다. 즉, 전문인에 대하여 피해를 일으켰지만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배려이다. 이는 많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책임의 종류?

책임의 종류에는 도덕적 책임(비난 책임), 법적 책임 두 가지가 있다.

법적 책임은 도덕적 책임 범위 안에 있다. 법적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사회적 자원인 신뢰를 저버리는 도덕적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실, 부주의, 태만은 도덕적 책임에 해당하지만 요즘에는 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실수로 했다고 모든 법적 책임을 면해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비해 현재 개인의 인권 및 공동체적 윤리의 관점에서 공동체에 폐를 끼치는 것 등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

책임의 주체?

물리적인 원인이 있어서 개인이나 팀, 부서 등에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 이는 당연히 그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물리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 즉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명확하게 원인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것을 구조적, 조직상의 원인이라고 한다. 조직 문화나 조직에서의 관행 때문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 조직이나 기업은 당연히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피해를 발생시킨 행위를 하게 한 정책이 조직이나 기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책임의 일곱가지 장애물

우리가 앞으로 책임을 줄여나가고 개선해서 공공의 안전 건강 복지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다.

첫번 째 여러 손들의 문제란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어떠한 일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이 나태해지면서 타인에게 자신의 일을 떠넘기는 식의 행동을 말한다.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두 번째는 맹점이다.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이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것들을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등의 행위이다.

세 번째 일탈의 정상화는 그동안 이루어진 관행을 따라서 계속 일탈을 하지만 이가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네 번째 이기주의적 관점과 자기중심적 관점은 말 그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일반인에게 전문가적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예시이다. 일반인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일반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 번째 미시적 시각이란 자신의 일에만 갇혀서 협업을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자신이 잘 했더라도 자신의 작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원활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거나 협조해야 한다.

여섯 번째 권위주의적 태도 혹은 권위에 대한 믿음이다. 사람들은 권위자에 대한 믿음을 갖는데, 막연하게 권위자가 옳다고 생각하고 복종하는 경향이 있다. 권위자가 어떠한 일을 시킬 때, 권위자가 현재의 권위를 갖기까지 그 사람이 옳았기 때문에 현재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생각에 맹종하는 것이다. 하지만 권위는 현재에 한정되는 것이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따라서 권위자가 시켜도 무조건적으로 복종하지 않고 옳은 판단을 하여 행동해야 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집단 사고이다. 이는 실패에 대해 집단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 집단이 다같이 단결하는 정서,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합리화와 집단의 침묵을 찬성으로 여기거나 반대하는 인물에게 직접적으로 압력을 넣는 것 등이 있겠다.